

순조로운 출발, 하지만 갈길이 멀다

출범 100일 카카오뱅크, 성과와 과제는?

계좌 개설·수신액 등 케이뱅크보다 성장 빨라
전월세 대출 상품 및 신용카드 사업 개시
자본 확보 위해 은산분리 완화 여부 관건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00일을 맞았다. 카카오뱅크의 100일은 '절반의 성공'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많은 화제와 주목할 실적으로 기존 금융권을 긴장시키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말 현재 계좌 개설 고객이 435만 명으로 하루 평균 4만3500명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 수신 규모는 4조200억원, 여신은 3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야심차게 발행한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는 318만 명이 발급했으며 해외송금도 총 3만4000여 건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앞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같은 기간 가입자 40만명, 수신액 6500억원, 여신액 610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5배 이상 빠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서울시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 오피스에서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선보일 새로운 상품



출범 100일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용우(왼쪽),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제공 | 카카오뱅크

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일요일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자동이 체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2019년을 사업 시작을 목표로 신용카드사업도 구상중이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혁신적인 서비스에서 나아가 고객이 쉽고 편리한 은행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일상에 초점을 맞춘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지연·접속 장애 시스템 결함 해결 과제
출범 초부터 돌보이는 실적과 의욕적인 행

보를 보이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미래가 장밋빛 희망으로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 확보를 위한 은산분리 정책의 완화 여부다. 8월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했지만, 현재의 여수신 증가 속도를 볼 때 새로운 추가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카카오뱅크의 속내는 답답하기만 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은행이 어려워지지는 않지만 혁신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서비스 지연 및 접속 장애 등 시스템 결함도 개선해야 할 요소다. 빠른 업무처리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대출신청 등 일부 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더뎠고, 고객 상담전화 연결도 쉽지 않아 불만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체크카드 결제 오류와 무단 인출 사건까지 발생하며 카카오뱅크의 금융 시스템과 보안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이 공동대표는 "시중은행보다 더 강한 보안과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썼지만 단기간에 진행하다 보니 대응할 물을 마련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스템 결함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물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강통제좌'로 불리는 비활성계좌 비율 증가와 중장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 공동대표는 "시중은행도 비활성계좌가 많다. 카카오뱅크의 비활성계좌 문제는 체크카드 발송 지연과 연관성이 있다. 체크카드 발송을 빨리 하고 싶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50대 이상은 보수적 성향을 띤다. 모바일 은행이라 지점이 없다는 점 등이 불안감으로 작용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삼성갤럭시 ‘월드컵’ 왕좌 등극

베이징 결승서 SKT T1 3대0 제압
한국리그 3강 맞대결, 퍼펙트 승리



삼성갤럭시가 '월드컵' 왕좌에 올랐다. 삼성갤럭시는 4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7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에서 SK텔레콤T1을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은 2014년 월드컵 우승 이후 두 번째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특히 지난해 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SK텔레콤T1에 설욕했다.

삼성갤럭시는 1세트부터 강력한 라인전과 치밀한 컨트롤, 전방위 압박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2세트에선 초반 SK텔레콤 T1의 공세에 다소 흔들리는 듯 했으나, 중후반 연이은 교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점을 챙겼다. 마지막 3세트는 박빙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다. 중반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갤럭시는 강력한 조합을 바탕으로 매서운 공세를 막아낸 뒤 후반 난전에서 한 수 위의 팀플레이를 보여주며 역전에 성공했다.

삼성갤럭시의 이번 우승은 의미가 남다르다. 2014년 월드컵 우승 이후 주축 선수들을 모두 잃었던 삼성갤럭시는 2015년 승강전까지 떨어지는 등 약팀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앰비션' 강찬용, '코어장전' 조용인, '롤러' 박재혁 등을 영입하면서 로스터를 회복했고, 꾸준히 팀 호흡을 맞췄다. 그 결과 2016 시즌에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고, 올해엔 지난해와 동일한 선수들로 장상에 서는 데 성공했다.

올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걸어온 과정도 드라마틱하다.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겨뤘던 KT블스터와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졌던 통주게이밍, 월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자타공인 세계최강 SK텔레콤 T1 모두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제압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리그로 평가



삼성 갤럭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4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7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 결승에서 SK텔레콤T1을 3대0으로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라이엇 게임즈

받는 한국리그(LCK), 그 안에서조차 가장 강력한 3팀에 단 한 세트조차 내주지 않은 셈이다.

삼성갤럭시는 총상금 중 37.5%를 가져가게 된다. 지난 3일 기준 총 상금은 약 460만 달러에 육박한다. 6일까지 판매된 '챔피언십 에쉬' 스킨과 '챔피언십 와드' 스킨 매출액의

25%도 총 상금에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월드컵 결승은 e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하듯 현장에 4만여 명의 팬이 가득 들어찼다. 최고 185달러의 티켓은 전석 매진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경제현장.jpg



5일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모델들이 대여용 장바구니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 142개 점점에서 일회용 종이 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는 장바구니 대여 및 판매를 시작한다. 대여용과 판매용 2종류로, 대여용은 계산대에 판매보증금(3000원)을 내고 사용 후 기간이나 점포에 상관 없이 고객센터로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판매용은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일회용 종이쇼핑백은 20일부터 매장에서 사라진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종이백 대신 장바구니 쓰세요”

블리자드, 블리즈컨 2017서 새 콘텐츠 공개



네러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블리즈컨 2017'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대거 공개했다. 먼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새로운 확장팩 '격전의 아제로스'(사진)를 발표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가제)과 애완동물 그림자 미호도 함께 공개했다. 팀기반 슈팅게임 '오버워치'는 신규 영웅(캐릭터) 모이라와 신규 점령·호위전장 블리자드월드, 라인하르트의 단편애니메이션 '명예와 영광' 등을 선보였다. 무료 온라인 팀전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도 알렉스트라자와 한조 등 신규 영웅 2명을 소개했다. 디지털 카드 게임 '하스스톤'은 새로운 확장팩 '코볼트와 지하 미궁'을 공개했다. 12월 출시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또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를 14일부터 무료로 한다고 밝혔다. 자유의 날개 캠페인 전체는 물론 '공허의 유산'의 최신 유

닛 등을 포함한 멀티플레이 래더, 협동 사령관 게임 모드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김명근 기자

LG생활건강, 어린이 건강 뮤지컬 선보여



했다. 구강건강, 위생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뮤지컬에 접목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기관에서 노래와 춤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뮤지컬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양치질을 싫어하는 주인공 봄이가 세계 여러 마을출제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이색적인 음식과 양치문화를 접하게 되고 치약요정 리오를 통해 올바른 양치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뮤지컬을 보는 동안 여러 나라의 춤, 음식, 노래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페리오 양치송'을 통해 양치의 필요성과 방법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정욱 기자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30일 ~ 11월 3일

코스피지수	2557.97	▲	+77.34
코스닥지수	701.13	▲	+11.16
日 낮케이 지수	2만2531.12	▲	+530.67
中 상하이 종합	3371.74	▼	-45.08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3	▼	-0.03
환율(원·달러)	1115.50	▼	-15.5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749.89	▼	-300.01

지수는 3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최양하 한샘 회장, 성폭행 논란 사과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임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최양하 한샘 회장(사진)이 여직원 사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제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한샘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일들로 많은 분이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을 제2, 제3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실한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영진부터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며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 TALK TALK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구설에 올라)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 입장”(농림축산식품부,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5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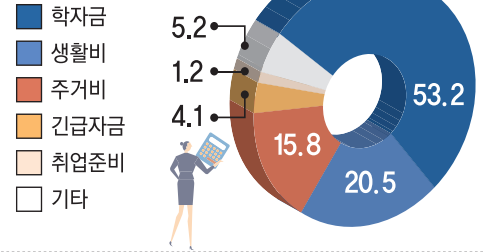
●“중국 환경규제 강화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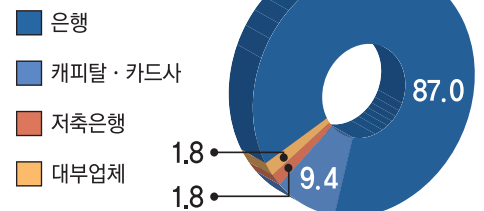
청년 대출 평균 1300만원, 고금리 대출도 13%

한국갤럽이 5월29일~6월23일까지 청년 850명, 대학생 850명 등 총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론회 심층집단지면조사에 따르면 청년 약 5명 중 1명(20.1%)은 대출을 경험했으며, 학자금 53.2%, 생활비 20.5%, 주거비 15.8% 등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1300만원이었다. 대출기관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던 비중도 13.0%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캐피탈·카드사 9.4%, 저축은행 1.8%, 대부업체 1.8% 등이었다.

●대출 목적(단위 : %)



●대출 기관(단위 : %)



편집 | 이수진 기자